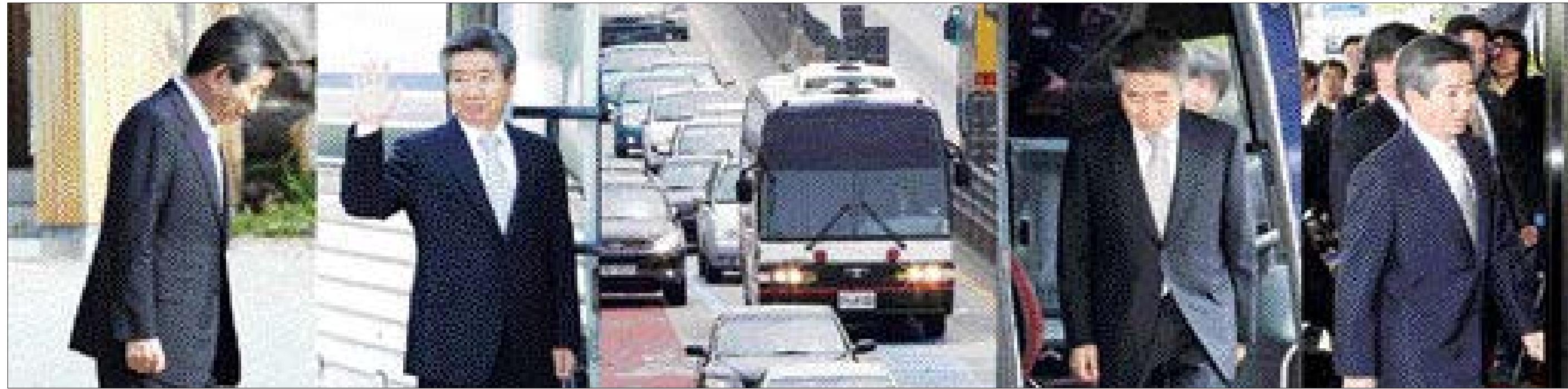


[노 전대통령 소환]



봉하고 대검까지

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봉하마을 사자를 떠나 대검찰청에서 조사를 받았다. 왼쪽부터 사자를 나와 인사말하는 모습, 버스로 향한 후 차에 오르기 전 손드는 모습, 버스 차량 행렬, 버스에서 내려 대검찰청으로 향하는 모습, 청사 문으로 들어가는 옆모습.

연합뉴스

내주중 기소…‘600만달러 주인’ 법정공방 예고

■ 혐의와 수사 전망

노무현 전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피의자 신분으로 대검 중수부에 불려나오면서 검찰의 기소가 사실상 초읽기 수순에 들어갔다.

노 전 대통령은 600만 달러 뇌물수수 등 주요 혐의를 대부분 부인하는 터여서 그를 둘러싼 의혹의 진실은 치열한 법정공방을 거쳐야 비로소 밝혀질 수 있게 됐다.

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겠지만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중 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및 국고손실 등 혐의로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.

1심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노 전 대통령 사건에 접수되면 이를 부폐사건 전담 재판부인 형사법의 22부(이규진 부장판사) 또는 형사법의 23부(홍승민 부장판사)에 배당할 것이 확실시된다.

포괄적 뇌물죄·국고손실 등 혐의 기소할 듯

盧의혹부인 무너뜨릴 검찰 히든카드 촉각

1995년 수천억원대 비자금 조성 및 12·12·5·18 사건으로 기소된 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 사건은 서울지법의 수석 재판부인 형사법의 30부(김영일 당시 부장판사)에 배당됐었다.

하지만 현재 서울중앙지법 수석부는 본안 재판을 맡지 않고 있는데다 2003년부터 부폐사건 전담 재판부가 따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배당 예규와 수

년간의 관례에 따라 이번 사건도 통상의 방식으로 맡기는 게 자연스럽다는 공감대가 법원 내부에 강하게 형성돼 있다.

재판이 시작되면 검찰과 노 전 대통령 측은 박연

탁을 받고 100만 달러를 보냈다는 박 회장의 진술을 확보했고 연 씨에게 투자됐다던 500만 달러 중 상당액이 노 전 대통령의 아들 건호 씨가 지배하는 회사에 투자된 사실을 밝혀냈다.

하지만 노 전 대통령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박 회장의 진술이 법정에서 신빙성 있는 증거로 받아들여질지 예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.

또한 ‘상식선에서 부인과 아들의 돈거래를 몰랐겠느냐’는 검찰의 논리 또한 엄격한 증거 재판주의라는 벽을 넘어서기에는 다소 힘이 부쳐 보이는 것

도 사실.

따라서 검찰이 노 전 대통령 진술의 신빙성을 무너뜨리기 위한 숨겨진 ‘팩트(사실)’를 법정에서 얼마나 더 내놓을 수 있을지가 노 전 대통령의 유무죄를 가결 결정 변수가 될 것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전반적 관측이다.

/박지경기자 jkpark@kwangju.co.kr 연합뉴스

■ 소환 이모저모

○…노무현 전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오전 7시57분께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 사저 현관을 나섰다가 무언가를 잊고 나온 듯 사저 안으로 되돌아갔다가 곧바로 다시 나와 검찰 소환에 응했다.

감색 양복에 흰색 셔츠, 연회색 격자무늬 넥타이 차림의 노 전 대통령은 그동안 사저 안에서 검찰 수사 상황과 국민의 반응을 지켜보느라 자칠 대로 지친 듯 초췌한 모습이었다.

특히 얼굴이 창백하고 머리가 하얗게 생 모습의 노 전 대통령은 대기중인 취재진을 향해 20도 정도 아래로 고개를 숙여 짧게 인사한 뒤 “국민 여러분께 면복없습니다. 실망시켜 드려서 죄송합니다. 가서… 잘 다녀오겠습니다”라고 말한 뒤 주먹을 움켜쥐고 20여 걸음을 옮겨 대기 중이던 버스로 향했다.

권양숙 여사 눈물 배웅…盧 저녁식사는 특곰탕

○…이날 권양숙 여사는 노 전 대통령을 배웅하면서 끝내 눈물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.

노 전 대통령을 수행한 한 비서관은 “권 여사께서는 (노 전 대통령을 배웅하면서) 우시기만 했다”며 “별 말씀이 없었다”고 말했다.

권 여사는 자신이 돈을 받았다고 했는데도 검찰이 남편만 겨냥하는 것을 불만스러워하는 것은 물론, 남편인 노 전 대통령에게 미안해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.

○…노무현 전 대통령과 일행은 5시간에 가까운 오후 조사를 일단 마무리하고 오후 6시30분부터 1시간 동안 특별조사실 옆 대기실에서 문재인·전해

철 변호사 및 수행원들과 곰탕으로 저녁을 들었다.

메뉴는 일행 모두 ‘곰탕 특(特)’에 계란 프라이가 더해졌으며 검찰은 대검 인근 식당에 노 전 대통령 일행이 맥을 식사를 미리 주문해뒀고 대검 직원과 노 전 대통령 측 경호원이 직접 식당에 찾아가 맥을

보고 청사로 날아왔다.

○…노무현 전 대통령은 태운 리무진 버스가 지난달 30일 오후 1시19분에 서울 서초동 대검 청사 정문을 통과하는 순간, 버스 쪽으로 신발 한 짚과 날개란 5~6개가 날아들어 2~3개는 버스의 지붕 부분과 창문에 맞았다.

신발과 계란은 던진 사람은 보수단체 회원들이

것으로 알려졌다. 보수국민연합, 반핵반김협의회, 대한민국아버지연합회 등 보수단체 회원 100여 명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대검 청사 주변에 모여 노 전 대통령을 비난하는 시위를 벌였다.

○…노무현 전 대통령 일행은 청와대 경호처가 제공한 버스로 봉하마을을 떠나 서울로 향했다.

육로를 택했을 때 동선을 따라 안전을 책임져야 하는 경찰은 고속도로보다 KTX를 타는 것이 좋겠다는 뜻을 노 전 대통령 측에 전달했지만 결국 최종 선택은 버스로 나침웠으며 이 버스는 42인승 일반 리무진 버스를 16인승으로 개조한 방탄 차량으로 알려졌다. /연합뉴스

■ 광주·전남 지역민 반응

“대통령 소환 언제까지… 한점 의혹 없이 밝혀야”

지난달 30일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에 소환되자 2002년 대선 당시 ‘노풍’의 진원지로 노 전 대통령에게 압도적 지지를 보였던 광주·전남지역민들은 이를 지켜보며 안타까움과 혀탈감에 빠졌다.

지난해 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봉하마을을 다녀왔다는 시민 정해정(여·41·광주시 서구 쌍촌동)씨는 “당시 대통령은 광주에서 왔다가 우리를 반겨주셨고 아이들과 함께 사진도 찍어주셨다”고 회상한 뒤 “그런 대통령에 대로 돈을 내 아이도 ‘대통령의 꿈’을 키워왔는데 이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답답하다”고 말했다.

시민 김모씨는 “경제 못 살린다고 한동안 미워했는데 소환 모습을 보니 가슴이 아프다”며 “대통령이 소환되는 사태를 언제까지 뇌물이하며 지켜봐야 하는지 착잡하다”고 심경을 토로했다.

광주시민사회단체총연합 김명술 사무총장은 “전직 대통령이 비리 혐의로 조사받는다는 것 자체가 현정부의 불행이다. 다시는 이같은 역사가 되풀이돼서는 안된다”고 강조한 뒤 “검찰은 정치 보복이라는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도록 명백하게 조사하고 공개해야 한다”고 촉구했다.

노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참여정부의 주요 인사들은 전직 대통령의 출두 모습에 참담해하면서도 검찰의 칼이 현정부를 비켜가고 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.

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식 홈페이지인 ‘사람 사는 세상’의 게시판에서도 곳곳에 안타까움이 물어났다.

아이디 ‘coffee21’은 “전두환·노태우 전 대통령과 비교 대상이 되는 게 화나고 억울하다. 힘의 논리와 부조리에 슬프고 화날 뿐이다”고 심경을 토로한 뒤 “하지만 많은 국민이 당신을 인정하고 사랑한다”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다.

광주지역 한 노사모 회원은 “노 전 대통령이 역경의 상장을 이기지 못하고 지나가면 더 큰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이며 노란색 장미꽃은 조사를 마친 뒤 별탈없이 돌아올 것을 바라고 환영하는 의미다”고 설명했다.

반면 보수단체 회원들은 “법을 잘 지켜야 하는 대통령이 뇌물을 받는 게 말이 되느냐”며 노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 수사를 촉구했다. /박정욱기자 jwpark@kwangju.co.kr